

내일 총선이라면? 민주당 33.1% vs 국민의힘 31.2%

한달 전 비해 민주 2.9%p ↑ · 국민의힘 1.1%p ↓
 “정권 견제 위해 野 다수당” 49.8% 과반 육박
 “국정운영 힘 실기 위해 與 다수당 돼야” 37.4%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각 찍겠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

조사’ 결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2%였다.

격차는 1.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였다.

직전 조사인 한 달 전(5월 6-7일)보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9%p 올라갔고 ‘국민의힘 선택’ 응답은 1.1%p

하락했다.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1%, 지지정당 없음은 17.3%이었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 모름·무응답은 3.7%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은 18세-20대(27.3%대 16.2%), 30대(33.8%대 24.1%), 40대(48.5%대 17.0%), 50대(42.5%대 25.9%)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4.3%로 민주당(20.8%)에 2배 이상으로 앞섰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40대(5.1%p ↑)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연령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3.4%p 높아졌지만 20대에서는 2.7%p 내렸다.

권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인천·경기(36.6%대 29.4%), 광주·전라(60.0%대 12.2%)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35.8%대 28.4%), 대구·경북(47.4%대 16.9%)에서 민주당을 따돌렸다.

서울(민주당 31.5%, 국민의힘 31.1%),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4.9%, 민주당 32.9%), 강원·제주(국민의힘 26.8%, 민주당 24.4%)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을 7.4%p 끌어올렸고 강원·제주에서도 7.3%p 올랐다. 4.2%p 하락한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4.7%p 올랐다. 강원·제주에서는 17.1%p 떨어지고 서울은 6.7%p 내렸다.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해 ‘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9.8%,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37.4%였다.

정권견제론이 국정안정론보다 12.4%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조사 문항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 달 전 조사(모름·무응답 이외에 ‘상관없음’ 응답도 조사)의 경우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34.5%,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비율은 32.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차 자진 출석 불발...검찰 앞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 검찰청에 자진 출석 뒤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입장을 밝힌 뒤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尹정권, 총선 기획 노골화” 맹비난

“검찰, 경찰, 감사원 이어 선관위 장악 시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당장 총선 기획용 국민 통제를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전 부문을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모습”이라며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최근 선관위 장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과 노동 현장을 탄압하고 있다”며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의원에게 청문 자료 유출 혐의를 들이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와 언론은 교차로

인사 검증을 해왔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였다”며 “(압수수색은) 국민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여야는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국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결의안이 국민의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함께 통과시켰던 결의안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의안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 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거듭 제언했다.

/김진수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돌입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지난 6일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일본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지난날 28일부터 각 읍·면별 시장 및 버스·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6일 현재 지역 주민 총 6천400여명이 서명에 참여

했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도 가계해수욕장과 31일 해남 명랑대접지수변무대에서 총 1천200여명의 수산인 및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도 개최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업계의 막대한 피

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군민과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일본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1인 피켓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등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서삼석, 국회서 ‘기후에너지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독일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다지는 한편, 한국과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탄

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도 이에 맞춰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30년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탄소중립 등을 국제사

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탄소 감축 책임 또한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서삼석 국회 의원(영남·무안·신안)은 이날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